

K-제약·바이오 “중동·북아프리카 흐름에 발 맞출 것”

사우디아라비아, 2040년까지 국제 바이오허브 로드맵 제시

조아제약 ‘아랍헬스 2024’ 참가 동남아·중동 할랄시장 공략 나서 SK바사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진 GC지놈 ‘메드랩2024’ 참석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형 제약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2040년까지 국제적인 바이오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생명공학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개시한 이 전략은 사우디가 오는 2030년까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바이오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2040년까지 국제적인 바이오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사우디는 해당 전략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300억 리알(346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2030년까지 1만1000명, 2040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아랍헬스 2024’에서 조아제약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아제약 부스를 운영했다. /조아제약

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우디는 혁신적인 백신기술 개발 및 현지 제조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의학을 위한 국가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분석 플랫폼 등을 주요 분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아제약은 올해도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헬스 2024’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아제약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아 세피지 앰플 등을 선보이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조아 세피지 앰플’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조아제

약의 설명이다. 조아제약은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 인도네시아 ‘무이’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한 수출용 ‘알크톤스텝1’, ‘알크톤스텝2’ 등에 대한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조아제약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할랄 시장 공략에도 나선 것이다.

조아제약은 지난 2010년부터 아랍헬스, 두바이 식품박람회 등 해외 현지 전시회에 매년 참가해 신규 시장 개척의 성과를 이뤄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현지에서 상담

을 진행한 바이어사 중 다수로부터 세부 정보 전달 및 협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및 아프리카 제약 산업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보편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중동 시장 특성에 맞는 자양강장제, 성기능 강화 제품,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아제약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도 갖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은 전 세계 거점 지역에서 각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백신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인 G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의 실행을 시작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공시한 ‘2023년 4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이 미래 성

장 동력을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3년 매출액은 3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영업손실액은 12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엔데믹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 시장을 진출을 강화해 자체 개발 백신의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상 유전체분석 전문기업 GC지놈도 중동 시장을 정조준한다. GC지놈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 동안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전시회 ‘메드랩2024’에 참석했다.

GC지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중암 조기 발견 및 선별이 가능한 ‘아이캔서치’를 비롯해 GC지놈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와 품목을 선보였다.

GC지놈 관계자는 “올해 3번째 메드랩 참가를 통해 암 관련 품목 수요 증가, 유전자 검사 대중화 등 중동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체감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G, 연 매출액 5.8兆…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 발표 해외권련 사업부문 실적 견인 NGP 견조한 매출수향 증가세 지속

KT&G가 7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3년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KT&G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512억원, 영업이익은 1986억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5조8724억원, 영업이익은 1조167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해외권련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이 1조1394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연간 실적을 견인했다. 해외권련을 포함한 NGP(차세대상품)·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1% 증가한 3조 3127억원이었다.

국내의 NGP 사업부문의 견조한 매출수향 증가세도 지속됐다. 연간 해외 스틱 매출수향은 82.4억 개비, 국내 스틱 매출 수향은 57.1억 개비로 전년 대비 각각 43%, 14.4%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법인 중심의 글로벌 권련 판매 호조와 해외 NGP 스틱 매출수향 고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담배 수향은 614억 개비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0억 개비를 돌파했다.

건기식사업부문도 해외 매출 확대에 따라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연간 건기식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조3938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164억원으로 전년 대

비 32.6% 증가하며 매출액 성장률을 상회했다.

이날 KT&G는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3개년(2024년~2026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하는 첫 해로 오는 16일 보유 중인 자사주 350만주(약 3150억원 규모)를 소각한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 즉시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사회는 2023년 결산배당금을 4000원으로 결의했다. 반기 배당금 1200원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200원 인상된 주당 5200원이 될 전망이다. 최종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노르웨이 국가입찰로 시장 확대

램시마SC·유플라이마 낙찰

셀트리온이 북유럽에서 셀트리온의 약품의 처방 확대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국가입찰에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가 각각 낙찰돼 노르웨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두 제품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노르웨이에 공급한다.

노르웨이는 국영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운영되며, 대부분 국가입찰 방식으로 바이오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 약가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설명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램시마SC와 유플라이마 모두 현지 법인에서 직접판매(직판)한다.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플라이마 모두 현지 법인에서 직접판매(직판)한다.

노르웨이 정부 및 현지 의료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두 제품의 실제 처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근거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노르웨이 인접 국가에서도 셀트리온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북유럽 전역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콜마비엔에이치 “글로벌 건기식 ODM 최고 공급자 될 것”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콜마비엔에이치가 지난 20년의 성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의 발전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6일 서울 서초 석오빌딩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사진)를 비롯해 콜마비엔에이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하지 못한 400여 명의 직원들도



세종, 음성사업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단독 체제 원년이다. 윤 대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기식 ODM 넘버 원 공급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그는 “콜마비엔에이치는 창립 20년 만에 국

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끄는 ‘헬스 앤 뷰티 토틸 솔루션 프론티어’가 됐다”며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엔에이치는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영업 경쟁력 확보 ▲ESG 경영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ODM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04년 한국 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합작으로 설립한 연구소1호 기업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 ADC 치료제 위탁개발 협업

(항체약물결합체)

레고캠바이오와 신규 계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레고캠바이오 사이언스와 항체약물결합체(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ADC 대표 주자로 꼽히는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캠바이오)와 위탁개발(CDO)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

해, ADC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항체 개발에 참여한다.

세종주 개발부터 임상물질 생산 전반에 걸쳐 CDO 서비스를 레고캠바이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